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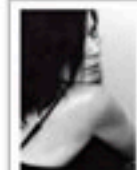


Flow

악몽을 예술로 바꿔놓은 예술가 수잔 번스타인 *Between*

LA에서 순수예술사진과 상업사진을 병행하고 있는 수잔 번스타인은 수년 동안 악몽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악몽을 그림으로 그려 표현해 보라고 제안하자 그녀는 이를 그림이 아닌 사진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총 3부작으로 이뤄진 악몽시리즈 〈On Waking Dreams〉, 〈Between〉, 〈Fight〉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탐구한 결과물이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악몽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와 렌즈를 직접 만들기까지 했다.

글 차근희



수잔 번스타인 Susan Burnstine

LA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잔 번스타인은 예술사진과 상업사진을 병행하는 유명 사진가다. 그녀의 작품은 해외 저명 갤러리에 전시되거나 소장돼 있으며 그녀의 작품집과 그녀의 기사를 다룬 잡지가 전 세계에서 출간되고 있다. 수잔 번스타인은 2009년 Santa Fe Prize for Photography에 노미네이트됐으며 B&W 매거진사에서 주최한 2008년 포토올리우 스포트라이트의 우승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녀의 첫 번째 논문 〈Within Shadow〉가 출간돼 올해 6월에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www.susanburnstine.com



Akew



Breakthrough



Submerge

직접 카메라와 렌즈를 만들었다고 들었다. 2005년 3월부터 카메라와 렌즈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나는 늘 잔혹한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어머니는 내게 악몽을 꿀 때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고 하셨다. 1999년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예전보다 밤이 더 무서워진 난 악몽을 꿀 때마다 느끼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다. 나는 일반 카메라로 그동안 겪었던 나의 모든 악몽과 꿈을 찍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어떤 카메라도 꿈속의 모습과 감정을 포착해내지는 못했다. 나는 Diana와 Holga와 같은 토이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효과가 나의 생각과 일치해 좋아했지만 곧 지루함을 느끼고 말았다. 토이카메라는 망원과 접사와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 때문에 이를 개조하기 시작했는데 결과물은 큰 변화가 없었다. 좌절한 나는 발명가이자 엔지니어인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는 내게 카메라와 렌즈를 만들 때 표면에 흡집을 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결국 나는 아버지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2005년 3월 드디어 나만의 렌즈와 카메라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 장비는 플라스틱과 고무, 테이프 등 다양한 소재로 이뤄져 있다. 오래된 카메라의 부품을 가져와 만들기도 했다. 렌즈의 틀은 프라모델과 고무, 비닐봉지로 잡았다. 첫 번째 테스트 샷은 'Blue's Nose'라는 이미지인데 상을 받을 정도로 꽤 훌륭했다. 결국 카메라와 렌즈를 만드는 데 성공한 나는 나의 괴로운 꿈을 찍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이를 촬영한 첫 번째 성공작은 2005년 6월 런던 Paddington역에서 찍은 'In Passage'라는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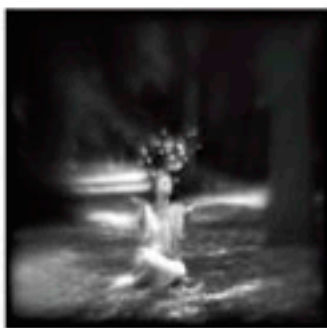
작품을 보면 초점이 뚜렷하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직접 만든 플라스틱 렌즈를 사용해서다. 이 렌즈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나타낸다. 심지어 내 자신도 예상할 수 없다. 다음으로 내가 꿈을 실제 기억의 은유로 보기 때문이다. 꿈은 절대 명백하지 않으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꿈을 만약 날카로운 렌즈로 찍는다면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작가 아서 트레스(Arthur Tress) 역시 자기 방식에 맞춰 꿈을 재현하는 데 멋지게 성공했다. 그러나 그가 촬영한 작품은 자신의 꿈속에서 모방해 온 개인적인 기억에 더 많은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나는 시각적이고 텍스트적인 의미를 고려해 명백하지 않은 또 다른 의식을 탐구하려고 한다.

시리즈 제목을 〈Between〉이라 지은 이유는. 'Between'은 감정적인 존재의 상태를 의미한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의 공간이고 때로는 뒤로 미끄러지기도 하는 장소인 것이다. 이는 무의식적인 경계 안에 갇혀있는 것으로 의사를통을 통해 높은 의식에 이르고자 한다. 이 시리즈는 〈Within Shadow〉의 한 부분이다. 〈Within Shadow〉는 〈On Waking Dreams〉, 〈Between〉, 〈Fight〉로 이뤄진 3부작이다. 이 중 〈Between〉은 〈On Waking Dreams〉와 〈Fight〉의 사이에 있어 제목을 'Between'이라 지었다. 〈Between〉은 내가 꿈에서 깬 때의 감정에 초점을 맞췄다. 무의

식적인 상태에서 자주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현실과 무의식적인 세계의 사이 다소 중첩돼 있는 상태에 내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흑백으로 작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나는 흑백 꿈을 본다. 사진의 꿈에 대한 표현이다. 만약 이 작업을 컬러로 찍었다면 매우 부정확하게 표현했을 것이다. 나는 정통적인 모노크롬 필름을 깊이 사랑한다. 흑백프린트로 작업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Between〉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과 그 이유는.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는 두 개다. 하나만 선택하는 건 불가능하다. 먼저 순수하고 마법 같은 'Suspend'라는 이미지다.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가능성, 마술, 신화와 의사소통에 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Yearn'이다. 내가 만든 작품 중 가장 강력하고 진실된 사진이다. 내가 몇 년 동안 겪었던 악몽을 표현한 것으로 그 꿈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매우 개인적인 이미지다.



Suspend



Yearn

당신의 작품들 중 대부분이 슬프게 느껴진다. 슬픔이 늘 당신을 따라 오는가. 이 시리즈는 꿈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개인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다. 〈Within Shadow〉중 하나인 〈Between〉은 어머니를 상실한 뒤 삶과 죽음에, 삶과 죽음에 사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물이다. 죽음, 상실과 같은 슬픔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다. 나의 모든 작품이 슬프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출거운 느낌의 작품과 공포스러운 이미지들 역시 많이 섞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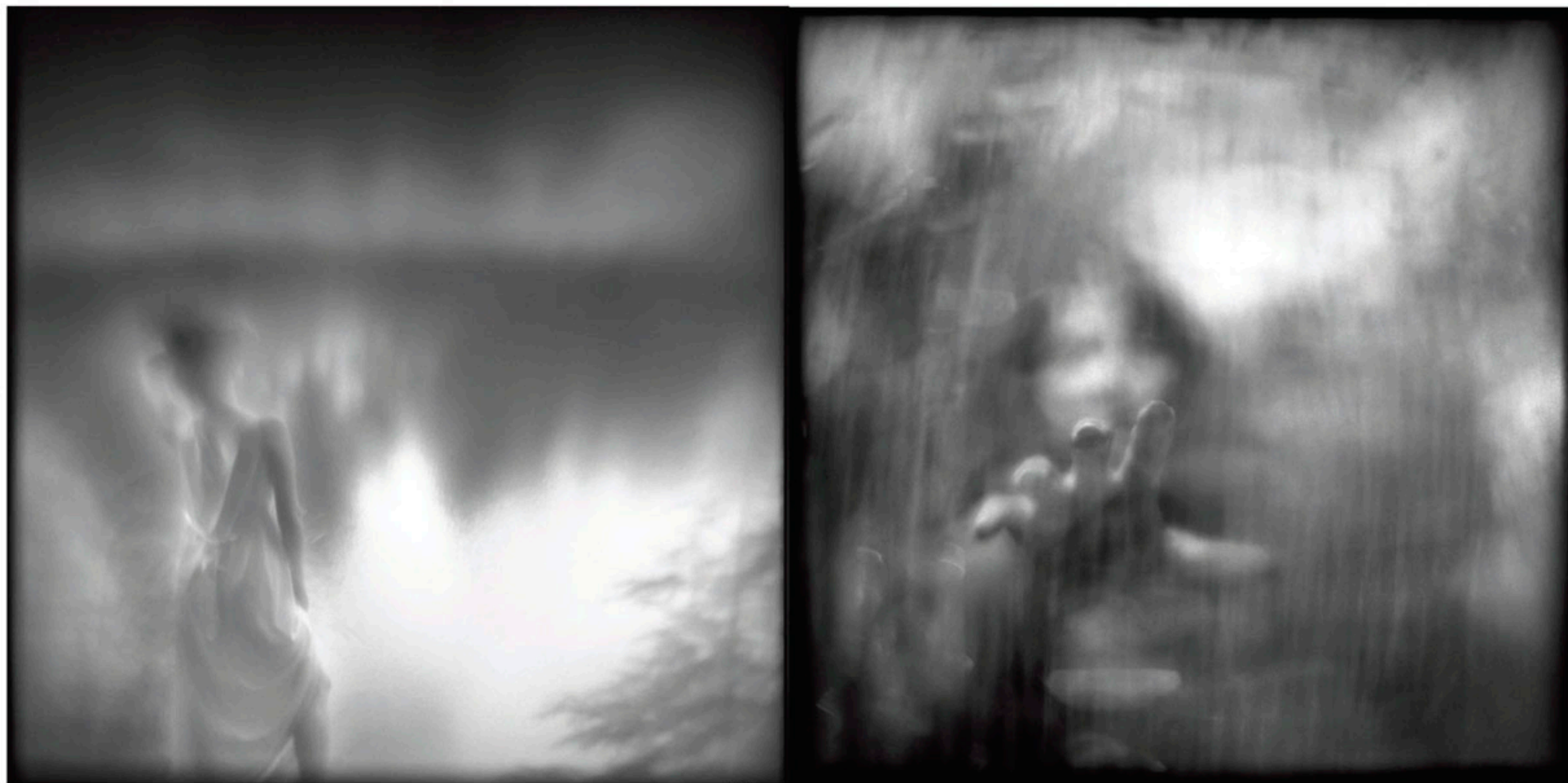
PHOTO+의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매일 영국의 흑백사진잡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어 잡지에 대한 큰 애정을 갖고 있다. PHOTO+에서 나의 작품을 언급하는 것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오래 전부터 예술가와 작가가 되기를 원했다. 8살 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이 즉각적인 대체와 사랑에 빠졌다. 나는 항상 최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성공을 달리고 있으면서도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 큰 꿈을 꾸고 더 열심히 노력할길 기원한다. +



Suspend

Grasp





Divide

Youn





Remember



Jump

